

서 평

양필승 편저,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 한나래, 1991
 -중국에 있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

이 일 영

양필승 교수는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1991)에서 中國史의 발전패턴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역사학 전공자는 물론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지어는 농학자, 기상학자들의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또 맑스주의적 계급투쟁론에 충실한 것에서부터 네오클래식 경제학 입장에서 계량적으로 접근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 논문이 입각해 있는 시각의 편차도 크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남부를 실증적 토대로 한 연구가 있는 반면, 중국 북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연구도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시대도 다양하여 通時代의인 글도 있으며, 宋代 이전을 다룬 글이나 주로 19~20세기를 다룬 글도 있다.

이같이 이 책에서 소개된 연구들은 매우 '多樣'한 이론과 접근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편자가 중국역사를 보는 관점과 편집방향은 비교적 '明瞭'하다. 즉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農業社會에서 産業社會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들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혁명전 중국의 농업구조와 농촌사회의 특징을 심도있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된 연구들에 따르면, 혁명전 중국농업과 농촌사회는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상당한 力動性을 가지며 발전하여 왔다. 편자가 이 연구들을 통해 제시하는 中國史의 歷史象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은 막대한 人口壓力에 대응하여 서구와 달리 勞動集約的 농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 때문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기술은 정체되었다. 중국농업은 노동생산성을 희생하고 토지생산성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인구팽창에 대응하여 성장해 오다 마침내 서구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에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혁명전 중국의 농촌사회는 복잡한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종래에는 '資本主義 萌芽論'의 입장에서 농업의 상업화를 이러한 계급분화의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압도적인 흐름이었다. 혁명전 중국농업의 상업화 수준은 비교적 높아서 專制王朝 시기의 중국농업이 봉건제하의 서구보다 상업화가 더 진행될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자는 중국의 경우에도 가족규모와 토지소유의 상관관계가 높았음을 감안하여 인구압력에 의한 農民層分解의 가능성과 이의 비중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중국농촌에는 國家의 개입이 비교적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국가

는 水利事業 등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농민과 지배계급간의 갈등을 완화·중재하는 데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또 혁명전 중국의 농민소유권은 프랑스보다 강력하였으며 농민소유권의 발달은 직접생산자인 농민과 그들의 생산수단인 토지와와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중국의 농민들은 지배층과의 역학관계에서 비교적 강력한 地位를 확보하였다는 것이다.

혁명전 중국에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小農이 농업생산의 지배적인 담당자였다고 한다. 이 때 중국사에서 小農經濟의 彈力性을 강화시켰던 요인은 첫째 농가부업, 특히 농촌수공업의 발전, 둘째 농민의 강력한 지위와 투쟁력 등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구압력에 따른 노동집약적 생산양식의 발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업화, 계급적 불평등에 의한 수취관계의 형성,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농민의 확고한 지위를 나타내는 농민소유권의 발전 등이 전제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소농경제의 끈질긴 생명력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국농촌에서는 농가경제가 파탄으로 빠져 마침내 農業危機가 발생하였다. 인구압력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토지이용은 전통적 농업기술이 허용하는 거의 최고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또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 지주소작관계는 날로 악화되었으며 소작농민은 생계유지마저 곤란해졌으나 국가권력은 太平天國운동 이후 중립적 위치를 상실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급격히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共產黨은 새로운 이념과 조직을 제공하였으며 혁명의 성공으로 소농들은 자신의 토지를 갖게 되었고 지주제는 소멸하였다.

편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혁명전 중국에 있어 소농경제의 탄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1978년 개혁 이후 家族農의 재등장과 연결짓고 있다. 혁명후 형성된 새로운 농촌환경은 소농경제의 소멸을 가져왔으나 1978년 이후 중국농촌에는 가족농이 부활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명전에는 소농경제가 탄력성을 발휘하여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의 발전을 가로막았으며 개혁 이후에는 대규모 집단농업보다 소규모 가족농이 우위에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편자는 결국 中國現代史를 農業社會에서 產業社會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혁명 과정의 방향을 결정한 혁명 이전의 전통적 농업과 농촌사회의 특수한 구조의 특징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宋代 이전에 대한 연구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토인비(A. Toynbee)는 產業革命을 단순한 기술혁신과 그 결과로서의 富의 양적 확대라는 경제과정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사회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一大社會革命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경쟁이 생산력을 급격히 발전시켰으나 분배면에서는 과거에 없던 커다란 불평등을 낳고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를 악화시켰다는 悲觀論(pessimistic view)의 입장을 취하였다. 한편 클레팸(J. H. Clapham)은 역사발전을 단절이나 혁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보하는 연속적 과정으로 보았다. 아울러 그는 임금통계 및 생계비지수를 기초로 계량분석을 행한 결과 영국노동자의 생활수준이 개선되었다는 樂觀論(optimistic view)을 주장하였다(金宗炫, 1979, pp. 273-278).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을 통하여 나타난 편자의 시각에 따르면, 현대 중국 경제개혁 그리고 중국의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連續性的原理’(principle of continuity)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농민의 생활수준에 대하여는 다소 樂觀論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확고하였던 농민의 지위와 소농경제의 탄력성 때문에 혁명 이후 중국의 산업화는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토대로 추진될 수는 없었으며 나아가 1978년 개혁 이후에도 농민생활은 급격히 향상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농업조직·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미시경제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集團農業에는 거래비용의 일종인 監視費用이 소요된다는 점, 그 감시비용은 성원의 노동유인에 관계되어 집단농업이 존립하기 위하여는 최적의 감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脫集團化의 근거는 집단의 노동공급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내지 조직화비용의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거래비용형 모델). 이에 비해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은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이라는 ‘현실적 문제의식’ 또는 ‘현대의식’을 역사학적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거의 국내유일의 논의라 할 수 있다. 1978년 이후 다시 나타난 가족농을 혁명전 소농과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데, 이 때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고리는 차야노프(Chayanov)가 담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혁명전 소농과 개혁후 가족농 사이의 集團農業은 어떠한 위치를 갖는가?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런데 현실 사회주의의 집단농업 체제의 경영원리 자체가 가족농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집단농업하에서도 개별농민의 의식 속에서 노임과 이윤은 분리되지 않았으며, 경영의 지표가 되는 소득개념은 純所得(m)이 아니라 粗所得(v+m)이었다. 또 농민의 노동력 이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경영체의 최대 관심사는 노동력의 완전연소였다는 점도 집단농업과 가족농의 유사성이다(平泉公雄, 1979, pp. 134-141). 이렇게 볼 때, 혁명전 소농, 혁명후 집단농업, 개혁후 가족농을 모두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좀더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여겨진다.

한편 중국의 개혁 이후 농업·농민 상황을 반드시 樂觀論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1978년 이후 脫集團化 과정을 통하여 창출된 영세소경영체제는, 쟁기로 기경(犁耕)을 행하고 쟁이·호미로 中耕을 행하는 園藝的 農耕方式(Gartenbau)과 결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와 같이 零細·分散된 경지구조와 전통적 기술체계에 기초한 개별 소경영으로 12억의 인구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노동생산성을 희생시키고 토지생산성을 집중적으로 추구하였는데 1978년 이전의 집단농업 체제에서는 이러한 농업생산성 발전패턴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1978-84년에는 가족농업으로의 이행과 함께 노동 및 토지 생산성이 동시에 증대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노동 및 토지생산성의 정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總生産性(total productivity)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1978-84년의 성장국면과 1985년 이후의 하락국면으로 뚜렷이 구분된다(李日榮, 1994a).

한편 혁명후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는 차야노프(Chayanov)의 소농경제이론, 즉 소농

경제의 탄력성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중국에도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러시아혁명이 성공한 직후 사회주의의 발전방향과 그 수단에 관한 치열한 이론투쟁의 과정에서 프레오브라젠스키는 社會主義工業化에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은 유명한 두가지 명제에 의해 요약한 바 있다. 첫째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原始的蓄積’의 주된 담당자는 농촌 또는 농민이며(잉여의 원천에 관한 명제) 둘째 잉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課稅, 國債, 銀行制度와 함께 價格政策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原始的蓄積’의 방법에 관한 명제) 것이다. 이 명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스탈린은 농민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貢租’(또는 ‘超課稅’)와 도시와 농촌간의 ‘缺狀價格差’라는 이중의 짐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내에서 프레오브라젠스키의 “原始的蓄積의 방법에 관한 명제”는 약간의 수정을 필요로 할 뿐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혁명후 공업을 중시하는 정책이 시행된 결과 그 동안 농업에 불리한 價格體系가 설정되어 왔으며 공업성장이 농업을 포함한 여타 부문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공업의 역할의 중요성은 개혁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히 중국은 농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진보를 통하여 “전체 경제성장 및 구조전화를 촉진하고 농업, 비농업 간의 적극적 상호작용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는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의 확장 비율 및 패턴”이라는, ‘均衡的’ 발전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개혁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연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李日榮, 1994b).

확실히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다. 혁명후 그리고 개혁후 중국의 농업과 농민의 상황을 樂觀論的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과연 중국의 歷史象은 어떤 모습이 될까? 또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蛇足 한마디.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은 중국에서는 인구성장이 通時代的으로 결정적인 문제였음을 가슴 아프지만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다. 太平天國운동을 전후한 전쟁과 기근이 없었으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인구증가가 중국농업의 식량공급능력을 앞질렀을 것이다. 毛澤東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장작을 지피면 불길도 올르고……밥먹는 입은 하나지만 일하는 손은 두개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용주의자들은 산아제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제는 女영아 살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無戶籍兒가 속출하고 있다.

목사 출신의 맬더스(Malthus)가 그의 『人口論』 2판에서 남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유명한 문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본다. “적어도 식량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몫으로 나누어진 후에는 인구증가가 억제되어야 한다.……기근이라는 무서운 형태의 재난을 두려워 한다면 우리는 자연을 위해 다른 형태의 파멸을 부지런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빈민에게는 청결함을 권고하지 말고 그 반대의 습관을 장려해야 한다. 도시의 거리는 더 좁게 만들고 집집마다 더 많은 사람이 북적거리게 하고 전염병이 잘 돌도록 유인해야 한다. 시골에서는 썩은 연못 근처에 마을을 만들고 특히 불결한 늪지대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질병을 퇴치하려는 것을 비난해야 한

다. 또 무질서를 추방하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인류에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비난해야 한다.”

〈참고문헌〉

양필승

1991 『중국의 농업과 농민운동』, 한나래

金宗炫

1979 『經濟史』, 경문사

李日榮

1994a 「中國農業의 産出·投入과 生産性」, 『農業經濟研究』 第35輯, 韓國農業經濟學會

李日榮

1994b 「1980年代 中國의 農業改革-農業生産性 및 農工間 關係의 分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平泉公雄

1979 『社會主義工業化と資本蓄積構造 - ハンガリの歴史的經驗』, アジア經濟研究所

이일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Tel : 962-7311(O)